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홀렸다

작품·연출·극본·작사·작곡상 등 美 토니상 6관왕

박천후 작가·윌 애런슨 작곡가 창작 파트너

섬세한 대사·독창적 무대 ‘로봇 로맨스’ 주목

글로벌 진출 기대감 속 국내 시장 저변 확대 과제로

Maybe Happy Ending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어쩌면 해피엔딩’ 제작진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수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커스 최, 박천후 작가, 헬렌 J. 센, 대런 크리스, 윌 애런슨 작곡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브로드웨이 최고 권위의 ‘토니상’을 거머쥐며 한류 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8일(현지시간)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남우주연상 등 주요 6개 부문을 석권했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초연된 창작 뮤지컬이 토니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종원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종합 예술 형태인 뮤지컬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라며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제작에 참여한 ‘물랑루즈’나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프로듀싱한 ‘위대한 개츠비’가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에서 개발되고 초연된 작품이 토니상을 받은 것은 최하다. 이번 수상으로 K콘텐츠가 아카데미, 노벨문학상에 이어 브로드웨이에서도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1세기 후반 한국을 배경으로 인간에게 버려진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의 이

야기를 그린다.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던 두 로봇은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가까워지고, 올리버의 옛 주인을 찾기 위해 제주도도 떠나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는다.

작품은 SF적 설정 속에서도 사랑의 본질을 섬세하게 풀어낸 대사와 넘버, 독창적인 무대 연출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상대방의 작은 표정과 몸짓에서 사랑을 알아가는 장면을 담은 넘버 ‘사랑이란’(When You’re In Love)은 대표 명장면으로 꼽힌다.

작품은 2015년 우란문화재단 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시범 공연을 선보였고, 이듬해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했다. 국내에서 다섯 시즌을 이어가며 2018년 한국뮤지컬어워즈 소극장 뮤지컬상 등을 받아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이후 영어 버전으로의 개발을 거쳐 2016년 뉴욕에서 남독회 형식의 공연을 가졌고, 토니상 수상 제작자 제프리 리처즈와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브로드웨이 진출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벨라스코 극장에서 오픈런(open run-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상연) 형태로 공연하고 있다. 점차 입소문을 타며 관객을 모았고, 주요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토니상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창작진은 윌 애런슨 작곡가와 박천후 작가. 이들은 뉴욕대학에서 만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창작 파트너로,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윌휴 콤비’로 불린다. ‘번지점프를 하다’, ‘일 테노레’ 등 다양한 작품에서 공동 작업을 이어오며 국내 뮤지컬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창작 뮤지컬의 글로벌 진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내 창작진들은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 등 세계 주요 무대를 꾸준히 두드리며 역량을 입증해왔다. 신춘수 대표는 아시아인 최초로 브로드웨이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 ‘위대한 개츠비’를 제작했고, 올해는 영국 무대에도 진출했다. ‘마리 퀴리’는 지난해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웨스트엔드에서 현지 프로덕션으로 장기 공연했으며, K팝을 소재로 한 뮤지컬 ‘K팝’이 2022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한국 뮤지컬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저변 확대라는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높은 티켓 가격이 대중의 접근성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4명 작가가 풀어내는 ‘시간의 예술’

동구예술작가회. 28일까지 예술의거리 갤러리 GD30

이 세상의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시간은 흐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은 어디에서 태동해 어디로 흐르는 것일까. 역사 이래로 많은 예술가들은 시간을 모티브로 작품을 구현했다. 시간은 후세대 예술가들에게도 끊임없는 영감과 상상의 원천이 될 것이다.

‘시간의 예술’을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 동구예술작가회가 오는 28일까지 예술의거리 갤러리 GD30에서 펼치는 전시가 그 것.

참여 작가는 최재영, 정해영, 정철, 변경섭, 김서아, 이선하, 한승희, 김춘미, 조주남, 최수미, 김병택, 박선정, 김재현, 이정래, 정영욱, 김진아, 추순정, 정인수, 이진희, 김혜숙, 박정일, 이순행, 문서현 등 모두 24명.

갤러리 입구는 주제를 연상하게 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꾸몄다. 흐르는 시계처럼 구성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시간 속으로 몰입하는 느낌을 갖게 했다.

최재영 작가의 ‘Fantasy-Time’은 시간의 축적을

이야기한다. 대지 위의 우람한 나무는 과거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 그리고 미래의 시간이 응결된 생명체다. 인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나무는 신비로우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다층다변의 삶을 대변한다.

정해영의 ‘시간-날다’는 잠시 찰나에 갇힌 영원한 순간을 서정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한 편의 시다. 둥근 달을 배경으로 백자 사발에 드리워진 매화는 동양적인 사유와 예술적 세계관을 가능하게 한다.

김서아의 ‘걱정 없는 방’은 동화적이면서도 환상적이다. 작가의 페르소나처럼 보이는 인물은 푸르름이 가득한 방에서 잠잠히 자신을 응시한다. 하얀 옷을 입은 하얀 얼굴의 페르소나는 때 묻지 않는 순수함을 추구하는, 어쩌면 오늘을 사는 많은 현대인들의 내면에 드리워진 순수한 자아의 표상일지 모른다.

최재영 화가는 “이번 전시는 시간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주제를 예술적으로 구현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며 “시간을 각자 독창적인 회화 작품으로



최재영 작 ‘Fantasy-Time’

구현한 작품들을 통해 오늘의 시간, 내일의 시간 등 시간이 내재하는 다양한 의미를 재해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2025년 광주문화재단 공모에 선정된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림동에서 지난해 열린 ‘양림예술축제’의 모습.

〈빛고을예술단 제공〉

음악으로 전하는 온기 ‘양림예술축제’ 열린다

빛고을예술단, 13일부터 매달 둘째주 금요일 펭귄마을

음악으로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무대 양림동 골목을 물들인다.

☞빛고을예술단은 오는 13일 오후 6시 광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2025 양림예술축제’의 첫 무대를 연다.

문화소의계층에게 음악을 매개로 사랑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축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야외 공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무대에는 재즈 가수 장소영, 트로트 가수 진이랑을 비롯해 퓨전난타팀 지스타, 통기타 연주자 최영준이 올라 장르를 넘나드는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여기에 박용주 음악감독의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와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희극·폼바 공연도 더해져 웃음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 진행은 박광신 아나운서가 맡는다.

축제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7월 11일, 8월 8일, 9월 12일, 10월 10일 등 매달 둘째 주 금요일마다 이어진다. 매회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해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빛고을예술단(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회하며 사회취약계층과 문화소의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연을 선보여왔다.

나덕주 빛고을예술단장은 “양림예술축제는 지역 예술인들과 음악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축제”라며 “지역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빛고을예술단 문의.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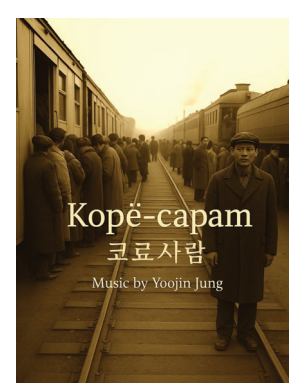
정유진 바이올리니스트, 고려인 역사 담은 ‘쿄료사람’ 발표

광주에 뿌리내린 고려인 공동체의 아픔과 희망이 음악으로 되살아났다.

광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정유진이 최근 고려인의 비극적 역사를 담은 곡 ‘Kopé-capam(쿄료사람)’을 발표했다.

정 바이올리니스트는 전남대 음악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했다. 그는 광주 고려인 마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세우고 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곡은 정 바이올리니스트가 선보이는 고려인 연작의 첫 작품으로, 낯선 타국에서 이어진 고려인의 고단한 삶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바이올린 선율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이국의 땅에서 견뎌낸 생의 무게를 절절하게 그려내며, 이들의 기억에 조용한 위로를 보낸다.



세회와 음악감독 이정욱도 이번 작업에 함께했다.

정 바이올리니스트는 “이 음악은 단지 연주곡이 아니라 고려인의 삶에 바치는 깊은 위로이자 헌사”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음악과 함께 공개된 앨범 커버에는 고려인들이 떠났던 철길 위로 ‘위로와 애도, 고귀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보라색 꽃이 그려졌으며, 뮤직비디오에는 실제 고려인들의 사진을 AI로 재구성한 이미지들이 등장해 역사적 울림을 더한다. 피아니스트 김

‘남도예술은행 in 렌트’ 작품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은 문화향유 기회 및 창작지원을 위한 ‘남도예술은행 in 렌트’ 작품을 공모한다. 모집 부문은 30호 이상 평면 작품으로 서양화, 동양화, 미디어 등 1명당 10개까지 신청 가능하다. 희망작가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전남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전남 도내에 거주하거나 전남 출생 또는 초·중·고등, 대학을 졸업한 자여야 하며 개인전 1회 또는 그룹전 5회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장애 예술가 작품은 우대할 예정이다. 선정 작가는 작품 임대료 수의 전액을 지급하며, 남도예술은행 기획행사 추진 시 참여 기회와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공모로 선정된 작품이 활발히 임대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